

주간 경제·주식 이슈 분석

2026년 9월 11일~26일 | 한국·미국 시장과 다음 주 관전 포인트

한눈에: 미국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에 부담을 주었고, AI 투자 기대와 한국 반도체 수출 급증은 시장을 지탱했다.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에 따라 하루하루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.

01 | 지난 2주, 무엇이 움직였나

시기	확인된 사건	시장에 이어지는 길
9/11	미국 8월 CPI 전월비 +0.4%, 전년비 +3.4% [1]	기름값 상승 → 물가 압력 → 금리 부담
9/16	미 연준 기준금리 0.25%p 인상, 3.75~4.00% [2]	돈을 빌리는 비용 상승 → 성장주 평가에 부담
9/21	한국 9월 1~20일 수출 714억 달러, 전년비 +78.3% [3]	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→ 기업 이익 기대
9/23	코스피 7,080.92 마감 [4]	AI·반도체 반등과 유가 진정이 투자심리 개선

02 | 미국: 물가와 금리가 왜 중요한가

미국 8월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 이상은 휘발유 가격 상승에서 나왔다. 연준은 물가가 높다고 판단해 9월 16일 기준금리를 올렸다. 이 사실만으로 모든 주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.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와 실적 전망이 강한 기술주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. [1][2]

쉬운 예: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·채권의 매력력이 커지고, 기업의 대출 이자도 비싸진다.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에 높은 가격을 매긴 주식은 부담을 느끼기 쉽다.

03 | 한국: 반도체 수출과 실제 경기의 차이

9월 1~20일 잠정 수출은 714억 달러, 수입은 484억 달러로 무역흑자 230억 달러였다. 반도체 수출은 341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9.4% 증가했다.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8%이므로 코스피와 반도체 대형주의 연결이 특히 강하다. [3]

다만 수출 증가 = 동네 가게 매출 증가는 아니다. 반도체 수출과 내수·건설·가계 소비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. 수출의 잠정치는 월말 확정치와 달라질 수도 있다.

04 | 국제유가·환율·국채금리, 이렇게 읽자

변수	오를 때 보통 나타나는 압력	한국 투자자가 볼 점
국제유가	운송·생산비 상승, 물가 재상승 위험	수입 부담, 항공·화학 등의 비용
미국 10년물 금리	채권 수익률 상승, 성장주 할인율 상승	나스닥·한국 성장주의 평가
원/달러 환율	원화 약세, 달러로 사는 원자재 비용 상승	외국인 자금과 수입물가
AI 설비투자	GPU·HBM·DRAM 주문 확대 기대	삼성전자·SK하이닉스 실적 전망

다음 주 시장 안내판

2026년 9월 28일~10월 2일 | 미국 지표는 현지 발표일 표기

날짜	확인할 일	한국에서의 관전 포인트
9/28 월	한국 증시 연휴 후 거래 재개	9/24~25 미국 시장 흐름을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음
9/29 화	미국 JOLTS 구인 통계 [5]	일자리 수요가 강하면 금리 인상 우려가 남음
9/30 수	미국 8월 PCE 물가 [6]	미국 오전 발표 → 한국 9/30 밤; 예상치와 비교
9/30 수	마이크론 분기 실적 [7]	미국 오후 실적 → 한국 10/1 새벽; 메모리·HBM 전망
10/1 목	한국 9월 수출입 발표 예상	반도체 호황이 9월 말까지 이어졌는지 확인
10/2 금	미국 9월 고용보고서 [5]	미국 오전 발표 → 한국 10/2 밤; 일자리·실업률

숫자를 읽는 간단한 규칙

PCE가 예상보다 높으면 물가가 덜 잡혔다고 보고 미국 국채금리가 오를 수 있다. 고용이 지나치게 강하면 금리 부담이 커지고,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 걱정이 커진다. 마이크론이 좋은 전망을 내놓으면 한국 메모리 업종에도 기대가 번질 수 있지만, 기업별 실적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.

업종별 체크 목록

업종	가장 먼저 볼 변수
반도체·장비	마이크론 실적·향후 수요, 한국 수출, 미국 AI 설비투자
전력기기	데이터센터 투자와 전력망 발주
정유·항공	국제유가: 같은 상승이라도 업종별 방향이 다름
인터넷·성장주	미국 물가와 10년물 국채금리
자동차·2차전지	미국 소비·환율·금리와 중국 경기

한 줄 기억법

미국은 물가·일자리, 한국은 반도체 수출, 전 세계는 유가. 숫자 자체보다 시장 예상과 얼마나 달랐는지가 다음 주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. 위 영향은 일반적인 경로이며 실제 주가는 다른 뉴스와 수급에 따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.

자료 및 날짜 확인 | 2026년 9월 27일

- [1] 미국 노동통계국, 8월 CPI: https://www.bls.gov/news.release/archives/cpi_09112026.htm
- [2] 미국 연방준비제도, 9/16 FOMC: <https://www.federalreserve.gov/newsevents/pressreleases/monetary20260916a.htm>
- [3] 관세청, 9월 1~20일 수출입 잠정치:
<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na/ntt/selectNttInfo.do?bbsId=1362&mi=2891&nttSn=10177443>
- [4] 코스피 종가: <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609277198i>
- [5]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 일정: https://www.bls.gov/schedule/2026/10_sched.htm
- [6] 미국 경제분석국 발표 일정: <https://www.bea.gov/news/schedule>
- [7] 마이크론 실적 일정: <https://investors.micron.com/news/press-release/2026/Micron-Technology-to-Report-Fiscal-Fourth-Quarter-Results-on-September-30-2026/default.aspx>